

▶ 공 지 사 항 ◀

● **선망 조상 및 인연 영가 백중 49일기도 안내**
입재: 7월 5일(일) - 회향: 8월 23일, 등참비 \$100.

- 7월 12일 불타사 불문회 총회
- 7월 19일 회주스님 법회, 불타사 골프대회
- 8월 16일 불타사 제 54회 법등회의

▶ 기 도 동 참(6월 28일 - 7월 4일)◀

- 법등: 이재광 김승한 이재현 윤여원
- 인등만등: 이현준 이현수 이현정 윤수인 윤수진 윤수민
- 백중기도: 이재광 진여성 이호석 김옥경 신경숙 홍정숙 박영규 박병란 김여운 윤여원 최성만
- 보 시: 쌀 10포, 기름 5gallon, 야채 4종류(구, 아리랑식품)
- 공양: 진여성(과일, 꽃) 박수관(과일) 선덕화 법연행(떡) 연화지(꽃) 이현준(제물)
- 건축: 회주스님

▶ 법회 및 기도 안내 ◀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30
- 불타 한글학교 :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30
- 영어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어린이 법회 : 일요일 오전 11시
- 청년(선우회) 법회 : 일요일 오후 2시
- 참선수행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불타합창단: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8시

- 회주: 현성스님
- 주지: 성향스님

시카고불타사
일요법회

불기 2559(2015)년
 7월 5일 제 46호

4360 W. MONTROSE AVE., CHICAGO, IL, 60641 T:773-286-1551



부처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이면 예외가 없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미세하든 거대하든
 길든지 짧든지, 크든 작든 중간이든
 눈으로 볼 수 있든, 눈으로 볼 수 없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태어났든, 태어나려 하든
 이 세상 모든 중생 평화롭고 행복하길..

- 자비경(karaṇīyametta Sutta, 까라니야 뱃따숫따) -

우란분절(백중)

우란분(盂蘭盆)은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Ullambana)를 음역한 것으로 '우란'은 거꾸로 매달린 것을 구제한다는 뜻이고 '분'은 그릇으로 음식을 돌아가신 영가에 드려 거꾸로 매달린 분의 고통을 구제해 준다는 뜻이다.

『목련경』과 『우란분경』에 따르면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신통제일인 목련존자가 수행 중 부모님이 생각나 신통의 눈으로 찾아보니 아버지는 천상에서 안락을 누리고 계신데 어머니는 생전에 갇은 악업을 많이 지어 지옥에 떨어져 그곳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을 당하고, 음식을 먹지 못해 굶주리는 등 큰 고초를 겪고 있음을 보고 부처님의 가호를 받고 지옥에 가서 어머니께 공양물을 올렸지만 불로변해 먹을 수가 없었다.

이에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어머니를 구하는 방법을 여쭙자 부처님께서 음력 칠월 보름인 우란분절에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려 재(齋)를 베풀면 어머니를 정토에 왕생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준다.

목련존자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지극한 발원을 하자 어머니는 지옥을 벗어나 아귀도를 거쳐 축생인 개의 몸을 받았다가 다시 사람으로 도리천에 태어난다.

이와 같이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해낸 일화로 부터 매년 음력 칠월 보름이 되면 선망부모를 아귀의 고통에서 천도하기 위해 천도재 즉 우란분재를 지내는 풍습이 시작되었다.

우란분절(음력 7월15일)은 하안거 해제일이며 백중 회향일이다. 또한 지옥문이 일년에 한번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보통 회향일 49일 전부터 입재일이 시작된다.

백중은 백가지 과일이 익어 먹을 수 있다는 뜻이고, 풍습에서민의 공휴일이며 장이서고 많은 이들이 모인다고 백중이라고도 합니다.

우란분절, 백중, 백중 다 같은 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 우란분절을 특히 정례화해서 부처님이 직접 우란분절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또 이날을 통해서 여러 스님들이 여름 결제기단 동안 공부를 잘 마치고 해제하면서 그 맑고 밝은 기운을 우리 살아 있는 존재들에게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곁을 떠나신 또 다른 차원의 존재들에게도 수행자들의 수행 에너지와 좋은 공덕을 나누는

불교의 전통 의례 의식의 날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주의 깊게 잘 성찰해 보면, 우리들의 삶은 나 혼자 힘으로만 사는데 아닙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수한 조상님들의 어떤 은덕, 복덕으로 또는 보살핌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무수한 공덕과 은덕이 지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나와 주변에 공덕이 두루두루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 살펴보면 그 집안의 부모님에게도 잘 하지만, 그 부모님 뿐 아니라 조상님들께 늘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잘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우란분절 또는 백중의식은 특히 부처님께서 매년 하안거 결제 때마다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변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권선하셔서 서로 좋은 선근공덕 인연을 맺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재부터 7재(49재)가 있으니까 많이 동참 하시면 좋겠습니다.

